

페미니즘 작가의 바느질 작업에 내재된 자아치유적 요소 연구

-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f self-healing element inherent in the needlework from a feminist artist.

- Focused on the Louise Bourgeois's works -

정영인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Chung, Young-In

Hanyang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바느질

- 2-1. 바느질에 내재된 여성심리
- 2-2. 미술로서의 바느질
- 2-3. 치유로서의 바느질
- 2-4. 바느질 작업의 작가
 - 2-4-1. 김수자
 - 2-4-2. 아네트 메사제

3. 루이즈 부르주아

- 3-1. 성장 배경 및 정신적 외상
- 3-2. 예술 활동시기와 배경
- 3-3. 시대별 작품분석

4. 루이즈 부르주아 바느질 작업에 내재된 자아치유 요소 분석

- 4-1. 두상 표현
- 4-2. 인체 표현
- 4-3. 모성 표현
- 4-4. 평면 표현

5. 결론

참고문헌

논문 요약

천에 수를 놓거나 옷감을 이어붙이는 바느질은 이제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종이, 캔버스, 천, 비닐 위에 수없이 반복되는 수작업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 작가인 김수자, 아네트 메사제의 작품을 통하여 미술로서의 바느질 표현방법을

살펴보고, 루이즈 부르주아의 바느질 작업이 미술표현의 수단뿐 아니라 자아치유의 매개체였음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부르주아의 바느질 작업은 그녀의 말처럼 '치유'의 상징이고, 바늘은 단순한 '복원'의 차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희망의 상징적 도구이기도 하다.

'나의 심리적 치유활동'으로서의 예술을 택했다는 페미니즘의 거장 루이즈 부르주아는 미술이 가진 카타르시스와 자기통찰이 뒷받침된 자아치유적 힘이 곧 예술이라 하였고, 이러한 예술이 자신의 삶을 반영해 준다고 하였다.

미술의 창작과정을 통한 미술치료가 근래 각광받고 있는 반면, 화가들의 작업과정에서 오는 자아치유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루이즈 부르주아, 바느질, 자아치유

Abstract

There are many patterns of needleworks, for instance, embroidery and patching designs, that are used in common practice such on clothes. Today, innumerable needlework has been expanded its definition by applying on a piece of paper, canvas, fabric, and vinyl that allows modern artists' extend their innovative creations.

This paper analyzes on how to express one's feelings through needleworks by reflecting on art works by two feminist artists Kim Soo-Ja and Annette Messager. This paper is concentrated on observing needlework being not only as a piece of art work but also being used as self-healing factors in Louise Bourgeois's art works.

As she mentioned, needlework is a symbol of "healing", the needle is not just a matter of "restoration". But also it is used as a messenger that links the past and the presence, thus, needle is a symbolic tool to convey hope. One of the greatest artists today, Louise Bourgeois, defines art as 'My psychological healing process'. In another words, art is the power of self-healing with support of catharsis and self awareness that reflects on one's life. In sum, people star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reative art programs in art therapy.

However, due to lack of researches on self-healing factors in artists' art work process, the further studies are ultimately necessary.

Keyword

Louise Bourgeois, needlework, self-heal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도적으로 자신만의 시간과 세계를 만들기 불가능했던 옛 여성들은 개인의 내재된 생활정서가 그대로 배어나오는 바느질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갔다. 이러한 소박한 규방문화에서 발전된 바느질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작가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작업매체로 응용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페미니즘 미술가들은 다양화된 매체 속에서 여성만이 구사할 수 있는 바느질뿐만 아닌, 여성 특유의 이미지와 매체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등장 이전에는 남성 중심 위주의 예술이었기 때문에 여성미술가들도 여성 특유의 매체와 이미지 보다는 남성과 동등하게 되고 싶은 욕구에서 오히려 남성적인 작품을 선보였다고 한다. 근래의 몇몇 페미니즘 작가들은 여성의 실생활의 한 부분인 바느질을 자신의 작업에 도입시킴으로써 작업 과정 중 자아치유의 효과를 느꼈다고 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바느질의 치유효과를 자신의 작업매체로 이용한 루이즈 부르주아, 그녀는 평화로웠던 가정이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되는 엄청난 정신적 시련을 겪은 불행한 기억과 체험을 자신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의 조각은 나의 심리분석학이다”라고 부르주아가 언급하였듯이, 그녀의 작업세계는 자전적인 심리의 탐구에 기초한다.

본 연구는 부르주아의 바느질 작업을 자아치유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치유 요인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바느질에 내재된 여성심리와 미술로서 바느질뿐 아닌, 치유로서의 바느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미술로서의 바느질은 김수자, 아네트 메사제의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고, 루이즈 부르주아의 바느질 작품 속에 내재된 자아치유적 요소를 통해 치유로서의 바느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 연구자들의 저서와 논문, 학술지, 외국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근거로 자아치유적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바느질

2-1. 바느질에 내재된 여성심리

바느질은 인종, 계층, 국경을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여성 특유의 정서로서 옛 부터 여성 자신의 창작 욕구를 분출하던 하나의 예술 형식이다. 바느질은 여성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자기표현 행위이며, 낡은 옷을 기워 입히거나 큰 옷을 줄여서 입히던 그 시절 그것을 밤새 만드시던 어머니의 모성애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과거 여성들에게는 딸을 교육시키고 미술품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그들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박힌 삶이며 예술이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바느질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창조적 잠재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특유의 감각을 현대에 들어 미술로 표현하면서 1970년대에는 여성적 이미지(Female image)¹⁾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삶의 일부로 쉽게 접하게 되는 누비이불, 퀼트, 양탄자 같은 것을 통해 여성 작가들 사이에서 천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페인팅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²⁾

2-2. 미술로서의 바느질

현대미술의 특징은 경계 허물기와 영역의 확장으로 나타난다. 예술의 영역 확장은 다양한 인종, 문화, 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고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여성들의 작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³⁾ 페미니즘 미술가들은 여성들 작업의 의의를 주장함으로써 미술의 위계적 분류에 대항해왔다. 그 중 몇 사람은 자수와 바느질 형식을 여성의 ‘진정한 문화유산’으로 찬양했다.⁴⁾

바느질은 색, 모양, 디자인의 형식적 특성에 더하여 감정적, 정신적 특성을 결합하는 예술이다. 미술 작품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바느질을 사용하여 천 조각과 조각을 이어 붙여 하나의 화면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바느질 땀으로 그림을 그리듯 선을 표현해 낼 수도 있으며 기계적인 바느질이 아닌 수(手)작업을 통하여 바늘땀으로 감정 이입의 효과를 표현할 수도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

1) 여성적 이미지 - 현대 여성 작가들(특히 197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여성만이 구사할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다원주의의 대두로 공예, 장식미술 및 여성작가들의 독특한 여성적 이미지가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p. 318

2) 천과 바느질 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 노신경, 2003

3) 퀼트, 행위에 내재된 여성심리 연구, 왕경애, 2006, p75

4) 로지카 파커 & 그리젤다 폴록, <여성·미술·이데올로기>, 이영철·목천균 역, 서울:시각과 언어, 1995, p.80

중 바느질은 미술표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미술이라는 장르에 내재된 수공예적 아름다움에는 예술가의 혼을 느낄 수 있는 노동과 시간이 담겨있기에 시대와 매체를 초월하는 가치를 갖게 된다.

2-3. 치유로서의 바느질

미술치료에서는 바느질, 뜨개질 등과 같은 신체 동작의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 안정감을 갖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과 욕구불만내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⁵⁾

즐거움 기억이든 아프고 힘든 기억이든, 기억을 반복적으로 재생,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에서 바느질의 치유 역할을 찾아 볼 수 있다. 바느질은 한 땀 한 땀 수놓는 행위의 반복이 수반되고, 단순한 반복의 동작 속에서 슬픔은 느껴지는 대로 표출해버려 가볍게 만들고 아픔을 반복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점점 무디게 만든다. 머릿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손은 구체적인 내용 또는 반복적인 바느질 행위로 몰두하여 표현해낼 수 있다. 그러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은밀함이 밖으로 내보여졌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쾌감을 얻게 되고, 자기발견을 통하여 치유의 효과를 창출한다.

이완희(1994), 김옥순(2004)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느질 작업에서 치료교육적 효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바느질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재미를 느껴야 하는데, 단순한 동작의 반복만으로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는 적어도 바느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미있는 활동이며 창조적 에너지와 치료적 효과가 있다.

2-4. 바느질 작업의 작가

2-4-1. 김수자

바느질을 이용하여 작업한 우리나라 작가로는 ‘바느질 여인’이라 불리는 김수자⁶⁾를 들 수 있다. 그녀의 작업은 이불보나 보자기와 같은 천을 사용하며, 바느질을 기본적인 기법으로 사용한다. 천을 조각보처럼 꿰매어 이어 붙이기도 하고 천으로 오브제를

감싸기도 한다.

김수자의 바느질 작업은 루이즈 부르주아의 바느질 작업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바느질 일을 도와드리는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바느질을 통해 사고와 감수성, 행위 모두가 일치하는 은밀하고도 놀라운 일체감을 체험했다고 한다. 또한 묻어두었던 그 술한 기억들과 아픔, 삶의 애정까지도 그 안에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이 모든 것들에 그녀 스스로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한다.



그림 1 김수자<하늘과 땅>
천을 꿰매고 그 위에 드로잉
채색 190× 151cm, 1984

<땅과 하늘>(그림-1)은 그녀의 초기작으로 형식적으로는 전통 규방문화의 산물인 조각보의 현대적 변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금박의 전통문양을 곁들인 원색의 비단 천과 같은 이불보 등의 천 조각들을 한땀 한땀

정성 들여 꿰매어 가는 공정은 동양 여성의 감수성을 조형화해 내는 적절한 코드로 작용한다. 형질을 자르고, 잇고, 꿰매고, 그 위에 또 그리는 매체적 실험을 통하여 규격화된 남성 표현과는 다른 자유분방하고 개방된 여성의 방식을 개발했으며 이런 기초 위에서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 나갔다.

(그림-2)의 작품처럼 그녀는 천을 꿰매는 ‘바늘’로서 일상과 예술 그리고 철학을 하나로 엮으려 한다. 즉 작가인



김수자가 바늘로 변해서 걸어다니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혼합매체, 오크빌 갤러리(온타리오)의 전시광경, 1997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바늘로 여기고, 세상을 천으로 여기는 그녀에게 바느질 행위라는 것은 세상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상처나고 결렬된 것을 보듬고 치유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4-2. 아네트 메사제(Annette Messager)

세계적인 페미니즘 미술가 아네트 메사제(65세)는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프랑스 대표로 초청되어 그해 영예로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얼마 전

5) 김진숙,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3, p. 153

6) 김수자는 1957년 대구 출생 홍익대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파리 에콜 데 보자르 수학 98년, 24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참가(99년) 및 4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는 등 현재 확고한 국제적 인지도를 획득한 작가이다.

우리나라(국립현대미술관 2008.3~6)에서도 대규모 회고전을 가진바 있다. 박제된 새, 형조 인형, 섬유, 사진, 드로잉 등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의 다양한 매체를 개척하여 여성 특유의 혼란과 긴장, 모순을 짚어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작가이다.

그녀의 많은 작품들은 뜨개질, 바느질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주로 작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다. 루이즈 부르주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과 실재, 내밀한 기억과 자전적 요소로부터 출발하여 예술이 지닌 소통과 치유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한다. 섬뜩하면서도 잔인하게 신체의 각 부분을 해체해 놓은 듯한 작품 역시 부르주아의 작품과 많이 닮아 있다. 이러한 잔인한 이미지의 작품 이면에는 바느질이라는 여성 특유의 기법으로 세밀한 감정이입과 상처까지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림 3 <기숙사생들>박제된 새들, 혼합매체, 풍파두미술관, 1971-1972

작가의 70년대 초기작 <기숙사생들>(그림-3)은 박제된 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살아있는 새가 자유의 표상이라면 죽은 새를 주워다 뜨개질로 짠 옷을 입힌 작업은 상처와 상처 받은 존재를 치유하는 행위를 동시에 보여준다. 박제된 새들로 제작된 기숙사생들은 작가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돌보고 옷을 입히고 들여다본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찰과 질투, 욕망, 불안과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해부라는 작가의 주제는 동물박제, 천, 바느질을 통하여 그의 전 작업에 걸쳐 세밀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보여 진다.



그림 4 <부품-가라앉은> 작품과 아네트 메사제, 2006

전시실 한 방 가득 낙하산 천으로 만든 작품<부품-가라앉은>(그림-4) 기계로 바람을 넣거나 빼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여 물체가 마치 숨을 쉬고 있는 듯 표현하였다. 이 작품 역시 바느질을 이용하여 만든 설치 작품이며, 신체 내장기관을 표현한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3. 루이즈 부르주아

3.1. 성장배경 및 정신적 외상



그림 5
<루이즈 부르주아>

2000

루이즈 부르주아(그림-5)는 191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타피스트리(Tapestry)⁷⁾ (그림-6, 7)를 운영하는 부모의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루이(Louis Bourgeois)는 부르주아에게 자신의 외모를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인 '루이즈'로 이름 붙였다. 루이즈는 3남매 중에서도 부르주아를 각별히 사랑했으며, 부르주아도 그러한 아버지를 좋아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는 권위적인 가장이었고, 가학적인 행동으로 가족들을 복종시키는 일이 많았다.



그림 6 타피스트리 가게에서의 부르주아 어머니, 1911



그림 7 타피스트리를 복원하는 루이즈 부르주아, 1990

부르주아가 11살이었을 때 그녀보다 7살 많은 세이디(Sadie)라는 여자 가정교사는 부르주아 아버지의 정부가 되어 가족들과 한 집에서 10년간 같이 살게 된다. 이런 아버지의 부정은 세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심어 주었고 인격 형성시기였던 세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영향이 컸던지, 부르주아의 언니 앙리에트(Henriette)는 성(性)적으로 문란, 남동생 피에르(Pierre)는 잔혹한(sadistic) 성격으로 성장하였다. 세이디와 아버지에 관한 반감은 작품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며 부르주아는 노년기에 다다라도 작업을 통하여 그들 존재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

7) 타피스트리(Tapestry)- 실로 짜여진 회화를 일컫는 말로서 씨실(Weft)과 날실(Warp)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색실로 회화를 한올 한올 짜아나간 고도의 감각과 기술이 어우러진 섬유예술작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부르주아의 어머니 조세핀(Josephine)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페미니스트였으며 부르주아에게 신뢰감과 사랑, 그리고 친근함의 기억을 남겨주었다. 그녀에게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가 1932년 병으로 사망했을 때 어머니의 죽음은 부르주아에게 참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와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예술과는 무관하게 수학을 전공한 그녀가 예술가가 되기 위해 파리국립학교에 입학한 것은 타피스트리의 복원현장을 지켜보며 성장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에 잠재해 있었음을 반영한다.

부르주아는 항상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1938년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논문 연구를 위해 파리에 온 로버트 골드워터(Robert Goldwater)를 만나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녀의 남편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부르주아의 어머니와 비슷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그녀와도 잘 맞았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Trauma)⁸⁾를 제거하기 위해 성과 죽음, 고립으로 인한 공포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이를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현실의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어 극복하고자 했다.

3-2. 예술 활동시기와 배경

부르주아는 초현실주의⁹⁾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도 자신은 초현실주의자라고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남성우위의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초현실주의들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와 방법은 자신과 전혀 달랐음을 주장한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무의식은 파괴적인 현실을 뛰어 넘고자한 방법인 반면, 부르주아에게 무의식은 실제로 경험한 세계를 재현하고자한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작품세계관 때문이었는지 반복적 행위인 바느질 작업으로 상처받은 무의식 세계를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며 그 속에서 스스로 치유적 요소를 찾게 되었는지 모른다.

어떤 범주에 넣거나 양식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녀의 작품들은 페미니즘의 영향이 미술사에 급속

하게 개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페미니즘 비평가들에 의해 재평가되면서 미술계의 화랑가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부터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루이즈 부르주아는 1999년도에 열린 제 4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고, 생존하는 세계 10대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국립현대미술관), 2002년(서울국제갤러리)에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바 있다.

3-3. 시대별 작품 분석

부르주아의 작품은 자신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성인기부터 그것을 걱정적으로 표현한 중년기, 자신이 겪은 정신적 외상으로부터의 화해를 구하는 노년기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성인기에 해당하는 1940~50년대는 부르주아가 결혼 후 미국으로 이주한 시기로 <관찰자(Observer)> (1947~49)(그림-8), <쿼란타니아(Quarantania)> (1947~53)(그림-9) 등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가족, 친지들을 의인화한 기하학적이며 수직적인 형태의 사람 크기 조각들이 제작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되는 <집=여자(Femme Maison)>시리즈(1946~47)(그림-10)의 초기 작품을 그린 시기로 부르주아가 뉴욕으로 이주한 후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관심을 두었던 여성의 억압과 해방, 여성과 가정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8
<관찰자>
브론즈에 채색
h.193cm



그림 9
<쿼란타니아>
204× 68× 68cm



그림 10
<집=여자>
1946-7 린넨에
유채잉크
91.4 x 35.6cm

중년기(1960~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르주아의 조각들은 신체의 성적(性的)이미지들(그림-11), 특히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통합된 양성(兩性) 이미지들이 흥

8)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충격)이나 그것으로 인한 쇼크성 장애

9)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6)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미술양식으로 인간의 모든 결과물은 무의식에서 유래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당시 프로이트의 이론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로운 방식으로 표현된다. 형태면으로는 1940년대, 50년대의 기하학적, 추상적인 경향(그림-12)으로부터 사실적, 유기적인 경향으로의 이행을 보이면서 보다 상징적인 서술성을 띠게 된다. 양면성 혹은 이중성은 부르주아의 예술세계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성이다. 즉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폭력과 에로틱함, 가학대증과 피학대증 그리고 내부와 외부라는 이원적 카테고리는 부르주아 조각에서 자주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11 <개화(開花)하는 야누스 Janus Fleur> 청동에 금색 파티나, 27.7×31.8×21.3cm, 1968



그림 12 <은신처 Lair> 라텍스, 24.1×42.5×36.5cm, 1963

노년기(1980~현재)에 들어선 부르주아는 <앙리에뜨(Henriette)>(그림-13), <다리(legs)>(그림-14), <나선형의 여인(Spiral Woman)>(2003)(그림-15)과 같은 작품들에서 눈, 귀, 팔, 다리 등 신체 일부 이미지로 된 작품들을 제작한다. 부르주아는 작품과 자신의 신체를 하나로 생각하였으므로, 신체 형상들은 그녀 내면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의 가장 직설적인 투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앙리에뜨>, 브론즈, 152.4×33×30.5 cm, 1985



그림 14 <다리>, 고무, 312.4×5.1×5.1 cm 1986



그림 15 <나선형의 여인>, 천, 바느질, 175.2×35.5×34.2cm 2003

노년기에 들어서야 그녀는 바느질을 통한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국제전, 비엔날레, 회고전 개최 등 왕성한 활동으로 부르주아의 국제적인 지명도가 확고해진 시기이기도하다.

4. 루이즈 부르주아 바느질 작업에 내재된 자아 치유 요소 분석

손뜨개나 십자수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나 표정을 보면 안정되고 한결같이 평온해 보인다. 이러한 실과 바늘이 주는 치유의 힘은 루이즈 부르주아가 한 세기 가까운 여정 끝에 발견한 것이었다. 차가운 청동과 대리석 속에서 폭력적인 남성성과 그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해 온 부르주아의 작품 경향에 비추어 보면 바느질 작업의 변화는 대단히 극적이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집 여자들은 모두 바늘을 사용했다. 나는 항상 바늘에 대하여, 바늘의 마법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었다. 바늘은 훼손된 것을 치유하는데 쓰인다. 이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⁰⁾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도우면서 접하게 된 바늘에 대해 “무용한 물건을 다시금 유용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바늘의 관용이 좋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바늘을 통해 손상된 것이 치유되는 마술적 경험에 끌렸고 이를 자신의 정서치유에 사용하게 된다. 그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조각조각 흩어진 천 조각을 기워 형묘인형을 만드는 바느질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부르주아의 작품 재료인 천 조각은 모두 집에서 직접 쓰던 물건들로, 96세인 그녀는 곧 자신의 유품이 될 물건들을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들며 세상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바느질은 신체적 행위를 통하여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관된 공포를 표출해 내며, 봉합과 치유를 상징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 반면에 임의성, 한시성, 즉 언제 다시 실밥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녀의 작업에서 바느질은 곧 치유행위를 상징하고 천 조각을 이어붙인 인체상은 회복과 화해, 용서를 의미한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의 외상에 의한 억눌린 감정과 분노를 드러내어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치유적 창작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정신분석학자인 왈러스(Edith Wallace)는 개인의 내면을 ‘창조의 원천(Creative source)’이라고 불렀고, 예술치료란 창작을 통해 내면이 외면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했다. 부르주아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조각적 재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속의 기억이 창작의 원천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

10) Quoted in Christiane Meyer-Thoss, <Louise Bourgeois : Designing for Free Fall (Zurich : Ammann Verlag, 1992)

너는 그것을 외면화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를 치료하고 있다.¹¹⁾

“예술은 정신적 온전함을 보증하는 것이다. 예술은 트라우마의 경험이거나 또는 재경험이다.”¹²⁾

부르주아가 위와 같이 말한 것처럼 예술은 트라우마를 다시 직면함으로써 고통을 반복하는 행위이다. 고통스러운데 왜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에서 치유의 결과가 생겨나는지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억압된 것이 강박적으로 반복적 행위를 하면서 주변에 깔려있는 트라우마를 상징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해된다고 한다. 반복이라는 기제는 주체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트라우마의 통제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포트/다(Fort/da) 놀이’¹³⁾에서 주체가 상실과 부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되는 언어 게임을 들여와 상징적으로 그 고통을 통제하는 경우가 이를 대표한다. 이러한 반복은 정신분석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포트/다 놀이에서도 상징화 될 수 없었던 것을 상징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¹⁴⁾

부르주아 역시 70년 가까운 작품 활동 기간 중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의 성기, 신체의 이미지에 집착하고 반복하였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미지들은 그녀의 어린 날의 상처와 연관이 되는 것들이다.

바느질 또한 한 곳에 집중하고 손의 움직임이 반복되는데, 이는 기억을 작품 내내 되풀이하여 마음속에 재생하게 된다. 반복되는 이 행위로 인하여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스스로 서술해내고 다독이며 즐거운 기억을 재생산하여 기록해냄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치유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¹⁵⁾

또한 기제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수공예적 손바느

질 작업의 정성과 노력은 스스로에게도 감정적일 수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대상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은 치성을 들이는 행위라 하여, 치성을 들인 대상은 복을 부르는 매체가 된다는 재래의 속신과 상통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미술치료 이론에 의하면, 몰두하여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 즉 그리는 사람의 감정을 실어 강한 힘을 실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심리적인 치료적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또한 미술치료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크래머(Kramer)는 치료로서의 미술이 대상에 따라서는 상동적인 표현이나 강박적인 표현, 왜곡된 표현들을 통해서도 예술적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부르주아 역시 미술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이 감소되거나 전환된다고 하였으며, 미술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원시적 충동이나 갈등을 재 경험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한다는 것이다.

1943년 부르주아는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치유로서의 미술(The Arts in Therapy)전’에 참여하여 명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기억에서 오는 상처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아 치유하려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기도 한다.

부르주아에게 예술은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출하였다. 또한 창작활동을 통해 과거의 상처에 관한 저항정신을 저하시키고 자신의 삶을 직시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풀고 자신의 심리를 재정비한다. 이는 그녀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도 아니다. 그것은 재창조하고자 하는 감정인 것이다.”¹⁷⁾

부르주아가 이렇듯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손바느질로 완성한 작품들은 인간, 특히 여성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망가지기 쉽고 고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들의 상처를 다독여주면서 스스로 치유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1. 두상 표현

그녀의 작품 <왜 당신은 그렇게 멀리 달아났습니까? (Why have you run so far away?)>(그림-16)는 분홍색 천 조각들을 기워 만든 어머니의 절단된 두

11) 양리에, <Louise Bourgeois의 작품에서 치유로 승화된 기억의 공간들에 관한 연구 : 밀실 시리즈를 중심으로>, 창원대 대학원, 2006, p.37

12) Marie-Laure Bernadac, <Louise Bourgeois>, Flammarion, 1996

13) 포트/다 놀이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18개월 된 손자가 실패에 매달린 끈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며 만들어 낸 놀이다. 아이가 실패를 집어던지고는 fort!(저기로 가버렸네!) 다시 줄로 실패를 당겨 원위치로 돌리고는 기뻐하며 da!(여기 있구나!)하는 것을 보며 반복적 표상의 심리적 기초를 발견하였다. 데이비드 스타 포크 클라크,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역, 서울 : 푸른 숲, 1997

14) 이승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통한 Louise Bourgeois의 작품세계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2006, p.17

15) 정지현, <바느질, 여성성의 자아치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3, p.32

16) 허동화, <우리 규방 문화>, 현암사, 1997, p.275

17) Marie-Laure Bernadac, <Louise Bourgeois>, Flammarion, 1996, p.7



그림 16 <왜 당신은 그렇게 멀리 달아났습니까?> 1999

상이다.

상처를 덮을 때 사용하는 거즈와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조각난 천을 하나하나 손바느질로 연결하면서 부르주아의 마음 뿐 아니라 어머니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는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사랑의 상징 표현이라고 그녀 자신이 정의내린 분홍색 천은 이 작품 외에도 바느질을 이용한 그녀의 작품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홍색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절단된 두상의 모습은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신적 상실감으로 인한 요구불만을 조각난 천을 기워가면서 어머니의 형상을 완성함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가슴 깊은 곳의 상처와 불안한 심리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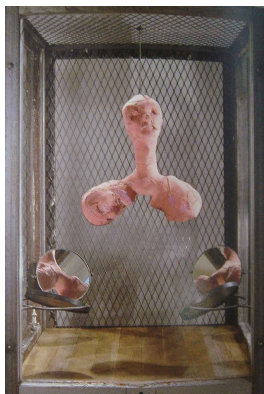


그림 17 <밀실 XI : 초상>, 2000

이와 비슷한 기법과 느낌이 같은 분홍천으로 바느질 작업한 또 다른 작품으로 <밀실 XI : 초상 (Cell XI : Portrait)> (그림-17)이 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리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3개의 머리가 엉겨 붙어 있는데, 이는 어머니, 아버지, 아이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을 나타낸다. 가족에 대한 주제는 부르주아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기억은 그녀의 작품에서 주제로의 반복, 바느질 행위로의 반복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거절(Rejection)>(그림-18), <무제(Untitled)>(그림-19), <무제(Untitled)>(그림-20)와 같이 다양한 질감과 여러 패턴의 천으로 어둡고 섬뜩하기까지 한 인물의 두상은 그녀의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끔찍한 두상표현을 통하여 자신 스스로의 심리 상태를 되돌아보고, 억눌린 감정을 표출해냄으로 카타르시스 뿐 아니라 마음의 치유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8
<거절>, 2001



그림 19
<무제>, 2002



그림 20
<무제>, 2002

4.2. 인체 표현

부르주아는 특히 인체를 표현한 작품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사람형상이 아닌 신체의 일부분이거나, 토르소 형태의 사지가 잘려나간 괴기스러운 작품들이 많다. 이는 부르주아 관점에서의 인체표현으로 상처 입은 신체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손상되기 쉬운지 육체의 가련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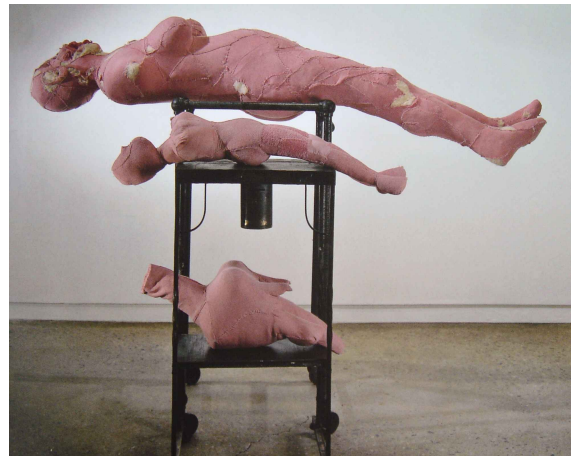


그림 21 <세 개의 지평선 Three horizontals>, 1998

<세 개의 수평선>(그림-21) 역시 두상표현에서처럼 분홍색 천 조각을 하나하나 기워 만든 작품으로 여기에서 수평선은 휴식, 안정, 수면을 상징하는 한편, 좁은 철제 받침대 위에 놓은 불안정한 신체는 깃털이 벗겨진 통닭의 형상과 함께 고깃덩어리로서의 신체의 비참함이 드러난다. 한 땀 한 땀 뻘뻘해지는 실자국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고, 분열된 신체는 하나로 통합된다. 바늘은 상처를 주는 대상인 동시에, 상처를 추스르게끔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1940년대부터 제작하던 <집=여자>시리즈(그림-10)

는 평면 회화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부드러운 앙고라 질감의 입체적인 바느질 작업(그림-22)에 이르게 된다. <집=여자>시리즈의 작품은 부르주아의 70년에



그림 22.
<집=여자 Femme Maison>, 2005

가까운 작품 활동에서 끊임없이 재 탐구되는 작품 주제 중의 하나로 회화, 대리석 조각, 바느질 작품, 마론 인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가정과 여성이라는 주제는 그녀의 예술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이 기존의 <집=여자>시리즈와 다른 점은 집모양이 사람의 머리 대신 놓여진 것이 아닌, 배위에 놓여진 점이다. 집을 신체의 주요부위인 머리에 배치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경계 안에 제한됨을 암시한다.¹⁸⁾ 그러나 이 작품에서의 집은 임신한 듯한 여성의 배위에 올라오므로 가정 문제, 세상의 억압들을 모두 포용하는 자세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른 바느질 작업과는 다르게 조각난 천을 기워서 만드는 형식이 아닌, 한 가지의 온전한 천으로 만든 작품이며, 그녀만의 특유의 기괴한 모양이 아닌,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마저 갖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커플>,
48.3× 15.9× 15.2cm,
2001

부르주아는 <커플 (Couple)>(그림-23)시리즈를 통하여 안고 있는 남녀의 신체를 표현하였다. 이 시리즈 대다수는 부르주아가 기존에 즐겨 쓰는 따뜻한 분홍, 베이지의 난색계열이 아닌 차가운 블루 톤의 한색계열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색에서 느껴지듯이 커플 시리즈는 실제로 그녀가 어린 시절 남녀의 성생활 모습을 목격하고, 서로 죽이려는 듯 보여 충격적이었던 감정을 재현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 외 다른 커플시리즈는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이어도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형국으로 나타났지만 이 작품은 서로에 대한 보듬음, 쓰다듬음 쪽에 더

18) 김효경<루이즈 부르주아 작품 연구>전북대 대학원, 2006, p.12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커플의 깊고 영원한 포옹 속에서 따스한 가족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진다.

4.3. 모성 표현



그림 24 <무제>, 1941

루이즈 부르주아는 임신을 모성애와 관련하여 여성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았다. 이러한 주제는 그녀가 실제로 아들을 낳은 1941년에 제작한 드로잉 <무제 Untitled>(그림-24)에서 처음 다루었다가 최근 그녀의 바느질 작품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녀의 초기 작품은 그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후반기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재탄생에 관한 은유적인 표현, 창조의 힘, 주기적으로 순환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갓난아이의 연약한 시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모성이라는 주제는 생명과 죽음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¹⁹⁾

‘모성’의 주제는 부르주아의 전체 작품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녀의 예술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어린 시절 경험에서 생성된 깊은 상처로부터 끊임없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부르주아는 바느질 작업을 통해 집요하게 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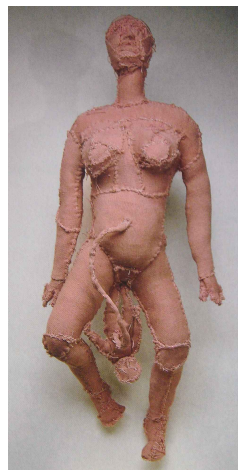


그림 25 <나를 버리지 마세요>, 1999

부르주아는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대상관계이론²⁰⁾에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론은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 좋은 어머니, 나쁜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는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느질 작품으로 표현한 <나를 버리지 마세요(Do not abandon me)>(그림-25)는 좋은 어머니를 표현한 작품이

19) Morris Frances., Herkenhoff Paulo, Bernadac Marie-Laure, <Louise Bourgeois> Random House, 2008

20) 정신분석학에서 모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으로 아이에 대한 엄마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다. 땃줄로 연결된 어머니와 아이모습으로 출생 후에도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자관계, 다시 말해 인간들 간의 신뢰와 희망이 복귀하고 화해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한다.

<엄마와 아이(mother and child)>(그림-26)는 팔다리가 하나씩 밖에 없는 어머니는 나무로 된 의자를 단 채 목발에 의지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관심



그림 26

<엄마와 아이>, 2001

조차 없어 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부르주아는 멜라니 클라인의 나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질망과 파괴, 폭력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유리병에 갇혀 있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27, 28)

역시 모성애를 다룬 작품으로 어머니의 배가 아닌 그물망 같은 곳에서 짜여 지는 아이(그림-

그림 27 <짜여지는 그림 28 <과묵한 27>와 어머니의 아이 The woven 아이The Reticent 뱃속에서 자라 child>, 2002 child>, 2003 나는 아이(그림-28)를 표현하였다. 대조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같은 모습이기도 한 이 작품들은 고립과 버림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녀의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평면 표현

부르주아는 붉은 실을 바늘코로 뜨고 꼬는 기법으로 작업한 책 <망각을 위한 시(ode Á L'oubli)>(그림 29, 30)시리즈에서 “종이 위로 나타난 그 실의 꼬임들, 섬유질들은 산을 타고 흐르는 강물처럼 보인다”고 하였고,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요즘에는 빨간색을 주로 쓴다. 아마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한가운데서도 이해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내면의식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총 36장의 평면의 바느질 작업을 통하여 부르주아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피가 아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것은 곧



그림 29 <망각을 위한 시>

36장, 천, 바느질, 27.3× 33.7cm, 2004



그림 30 <망각을 위한 시> 부분

치유로 이어진 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퀼트작품 같기도 한 화려한 색감의 이 손바느질 작업은 자신의 응어리를 하나하나 이야기 하듯 풀어내 준 작품으로 그녀의 일기장 같기도 하다. 이 작품은 실제로 책을 의미하는 작품이며,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투사시키는 그녀의 자전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글씨대신 여러 색의 조각난 천을 바느질로 이어주어 문양을 만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관람자로 하여금 이끌어 내고 있다.

부르주아가 대리석 등 차가운 돌을 망치로 때리고 부수며 조각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노년에 와서야 시작한 바느질 작업은 카타르시스를 지나 진정한 치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준 매개체이기도 하다. 덩치 있는 큰 작품의 바느질 작품보다 평면적이면서도 두 손바닥 크기정도의 작은 천에 수를 놓듯 바느질 하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의 상처와 응어리진 마음이 아닌 자기초월로 가고 있는 듯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페미니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삶과 작품세계를 통해 자기치유로서의 바느질 작업이 가진 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루이즈 부르주아를 포함한 김수자, 아네트 메사제는 페미니즘 작가이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페미니즘 분류에 갇히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원을 창조적인 영감으로 재생산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스케일의 변주로 거듭난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부르주아는 작업의 원천을 “아버지의 외도”라는 어릴 때의 상처를 들었는데,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경험을 중시,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여성특유의 정서인 바느질 작업을 통해 자아치유적 경험을 하였다.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통하여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혼을 담아 생명력을 불어 넣고, 그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화작용을 하였다.

그녀의 바느질 작업을 통한 기억의 반복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는 그녀의 고갈되지 않는 예술혼의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 한 것이며, 그러한 상처를 미술이라는 작업 활동을 통해 펼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미술이 가진 자아치유의 힘, 즉 미술치료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루이즈 부르주아는 96세의 고령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효경,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연구> 전북대 대학원, 2006
- 이상매,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세계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2003
- 정현경, <자기치유의 관점에서 본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세계:오브제 사용을 중심으로>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2006
- 노신경, <천과 바느질 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2003
- 정지현, <바느질, 여성성의 자아치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2003
- 양리애, <Louise Bourgeois의 작품에서 치유로 승화된 기억의 공간들에 관한 연구 :밀실 시리즈 중

심으로> 창원대 대학원, 2006

- 왕경애, <퀼트, 행위에 내재된 여성심리 연구 : 반복, 증식,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2006
- 김옥순, <선호성중심의 바느질 작업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과제참여 행동과 바느질기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 2004
- 로지카 파커&그리젤다 폴록<여성·미술·이데올로기> 이영철·목천균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5
-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 김진숙, <예수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3
-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역, 서울 : 푸른숲, 1997
- Marie-Laure Bernadac, <Louise Bourgeois>, Flammarion, 1996
- Teresa Dalley, Images of Art Therapy, London : Tavistock, 1987
- Greenberg, Jan<Runaway Girl : The Artist Louise Bourgeois> Harry N. Abrams, 2003
- Kellein, Thomas <Louise Bourgeois :la famille> Distributed Art, 2007
- Storr, Robert <Louise Bourgeois (Contemporary Artists S.)>, Phaidon, 2003
- Jerry Gorovoy, Pandora Tabatabai Asbaghi <Louise Bourgeois :blue days and pink days>, Fondazione Prada, 1997
- Crone, Rainer <Louise Bourgeois : the secret of the cells >, Prestel Pub, 2008
- Morris Frances., Herkenhoff Paulo, Bernadac Marie-Laure, <Louise Bourgeois> Random House, 2008
- Bernadac, Marie-Laure <Louise Bourgeois> Random House>, 2007
- <http://myinnis.cafe24.com/museum/v3musslouise7.htm>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62&aid=0000001521&Redirect=Log&logNo=20018009711>